껍데기의 삶

시, 불교를 만나다

㉗ 아상(我相) 비우기 : 신동엽의 '껍데기는 가라'



해당 삽화는 생성형 AI를 통해 제작했습니다.

대학 시절 판소리도 잘하고 전통 탈춤도 잘 추는 선배가 있었다. 그 선배는 길을 가다가 풍물 소리가 들리면 주위를 의식하지 않고 덩실덩실 춤을 추곤 했다. 그 모습이 부럽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해서 언젠가 물어본 적이 있다. 어떻게 그처럼 자연스럽게 길거리에서 춤을 출 수 있는지, 주위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지지 않는지 말이다. 그때 생각지도 못한 뜻밖의 대답이 돌아왔다.

"나를 비우면 돼."

남들에게 잘 보이려는 마음을 비우면, 언제 어디서든 거리낌 없이 춤추고 노래할 수 있다는 뜻이었다. 나중에 불교를 공부하고 알게 된 것이지만, 그때 선배가 말한 '나'는 바로 〈금강경〉에서 강조한 '아상(我相)'이었다. 당시 선배의 말을 듣고 나에 대한 의문점 하나가 풀렸다. 어떤 모임에서 자기소개를 할 때 내 차례가 다가오면 어김없이 심장이 뛰고 긴장이 됐는데, 알고 보니 그것은 다름 아닌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고 싶은 상(相)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저 무의식 깊은 곳에 숨어 있는 '아상'이란 놈이 바로 울렁증의 원인이라는 것을 그 선배를 통해 알게 된 것이다.

신동엽(申東曄, 1930~1969)의 시 '껍데기는 가라'를 읽으면서 문득 그 시절이 떠올랐다. 물론 맥락과 의미는 조금 다르지만, 시인이 말한 껍데기와 앞서 언급한 '아상'은 서로 통하는 지점이 있는 것 같다. 껍데기는 알맹이를, 아상은 참다운 나를 숨기고 있는 일종의 가면과 같아서 그렇게 느낀 것이다. 껍데기와 아상을 저멀리 보내고 진심(眞心)과 진심이 만나는 광장이 우리가 꿈꾸는 파라다이스, 즉 정토가 아닐까 싶다.

알려진 것처럼, 신동엽은 김수영(金洙暎, 1921~1968)과 함께 1960년대를 대표하는 저항시인이다. 저항시인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그는 사범학교에 다니던 1948년 11월 퇴학을 당한다. 이승만 정권이 토지 개혁을 실시하지 않고 친일 과거를 청산하지 않는 것에 항의하며 동맹 휴학을 이끌었기 때문이다. 이후에는 다른 대학을 졸업하고 헌책방을 운영하면서 시를 쓰게 된다. 이때 부인 인병선을 만나 결혼하는데, 그녀는 서울대에 입학했으나 가난한 시인을 위해 중퇴하고 살림을 책임진다. 오늘날 신동엽이라는 이름이 있게 된 것은 그녀의 희생 덕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신동엽은 1959년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이야기하는 쟁기꾼의 대지'라는 작품이 당선돼 등단하게 된다. 그리고 이듬해 일어난 4·19혁명은 시인의 삶을 완전히 바꿔 놓는다. 당시 그는 혁명 정신을 기린 〈학생혁명시집〉을 출간하고 참여하게 된다. 그의 대표작인 '껍데기는 가라'와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또한 4·19혁명을 배경으로 쓰인 작품이다.

창작 활동을 이어 가던 시인은 1969년 지병인 간암이 악화해 39세라는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된다. 그의 사후 아내 인병선은 남편의 육필 원고를 모아 유고집을 발간한다. 오늘날 우리가 보는 신동엽의 주옥 같은 시들은 부인이 아니었다면 세상에 나오지 못했을 것이다. 그녀에게 감사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 셈이다. 시인의 문학 정신을 기리기 위해 신동엽문학상이 제정돼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2003년에는 그의 공로를 인정해 은관문화훈장을 수여하기도 했다.

오늘의 시 '껍데기는 가라'는 고등학교 교과서에 실릴 만큼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작품이다. 이 시는 1967년 발표됐는데, 민주화의 열망으로 일어난 4·19혁명이 실패로 끝나고 5·16쿠데타로 군사정권이 들어서면서 느낀 시인의 아픔이 오롯이 담겨 있다. 동학혁명과 남북 간의 대결이라는 아픈 역사 또한 시를 통해 느낄 수 있다. 혁명의 정신은 사라지고 껍데기만 남은 현실을 직시한 시인은 온몸을 다해 알맹이가 중요하다고 외치고 있다. 직접 시를 읽어 보기로 하자.

"껍데기는 가라. / 사월(四月)도 알맹이만 남고 / 껍데기는 가라. // 껍데기는 가라. / 동학년(東學年) 곰나루의, 그 아우성만 살고 / 껍데기는 가라. // 그리하여, 다시 / 껍데기는 가라. / 이곳에선, 두 가슴과 그곳까지 내논 / 아사달 아사녀가 / 중립(中立)의 초례청 앞에 서서 / 부끄럼 빛내며 / 맞절할지니 // 껍데기는 가라. / 한라(漢拏)에서 백두(白頭)까지 / 향그러운 흙가슴만 남고 / 그, 모오든 쇠붙이는 가라."

4·19혁명 실패·군사정권 아픔 등 담겨
민주화 열망 방해 껍데기 현실 직시도
껍데기인 상(相) 제거 위해 삼독 닦아야

아상(我相)을 제거하라

이 시를 다시 읽으면서 〈금강경〉의 사상(四相), 즉 아상(我相)과 인상(人相), 중생상(衆生相), 수자상(壽者相)이 떠올랐다. 〈금강경〉은 상(相)과 공(空)의 한판 대결을 다룬 경전이다. 상이 집착이라면, 공은 이를 텅 비우는 일이다. 나와 남, 중생, 영혼이라는 상에 집착하면 삶이 괴로울 수밖에 없다. 여기에서 중심이 되는 것은 아상이다. 나에 대한 집착만 비우게 되면, 다른 상들은 저절로 사라지니 말이다. 중생과 부처의 차이도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중생은 상이 공을 이기기 때문에 괴롭지만, 불보살은 공이 상을 압도하므로 집착이 없고 자유자재한 삶을 사는 것이다. 이 경전은 지혜라는 강력한 방망이, 금강저(金剛杵)로 집착을 물리치고 공을 체득할 때 행복한 삶이 가능하다고 말한다.

〈금강경〉에 등장하는 상이 이 시에서 말하는 '껍데기'와 의미가 서로 통하는 것 같다. 앞서 말한 것처럼, 이 시는 동학혁명과 4·19혁명, 남북한 대치라는 시대 상황을 담고 있다. 먼저 시인은 민주화에 대한 순수한 열망인 4·19의 '알맹이'만 남고 허위적인 껍데기는 가라고 노래한다. 동학혁명도 마찬가지로 '아우성', 즉 불의에 항거한 정신과 열정만 남으면 된다. 남북한 대치라는 비극적 상황에서도 중요한 것은 한라에서 백두까지 우리만의 향기를 품고 있는 '흙가슴'이다.

그런데 껍데기가 우리 역사의 순수한 정신을 방해하고 있다. 예컨대 시에서는 남북 간의 군사적 대치 상황과 전쟁의 위협이 '쇠붙이'라는 상징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 북한의 핵무기와 남한의 각종 첨단 무기가 한라와 백두 사이를 갈라놓은 것이다. 갈라진 백두대간을 다시 이으려면 껍데기와 쇠붙이라는 상(相)이 제거돼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진심과 진심이 만나 "두 가슴과 그곳까지 내논 / 아사달 아사녀가 / 중립(中立)의 초례청 앞에 서서" 서로 맞절할 수 있다.

대학 시절 범상치 않은 포스 때문인지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선배가 있었다.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는 내 의지가 아니지만, 갈 때만은 자기 뜻대로 하겠다면서 30대 젊은 나이에 스스로 세상을 버린 사람이다. 당시 그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사는지 알고 싶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처럼 가까이하는 일이 쉽지 않았다. 그래서 택한 방법이 마음의 옷을 모두 벗고 다가가는 것이었다. 시에서처럼 껍데기를 벗고 마음의 '두 가슴과 그곳'을 모두 내놓은 채 다가선 것이다. 내 안에 있는 상처와 민낯을 모두 드러내자, 그 역시 마음을 열고 대하기 시작했다. 그때 느꼈다. 진심과 진심이 만나려면 껍데기를 버려야 한다는 것을.

그렇다면 아상이라는 껍데기를 벗겨 내는 방법이 있을까? 시인은 먼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먹구름을 닦으라고 한다. 그래야 맑고 순수한 알맹이가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이다. 시인의 말을 직접 들어 보기로 하자.

"닦아라, 사람들아 / 네 마음속 구름 / 찢어라, 사람들아, / 네 머리 덮은 쇠 항아리. / 아침저녁 / 네 마음속 구름을 닦고 / 티 없이 맑은 영원의 하늘 / 볼 수 있는 사람은 / 외경(畏敬)을 / 알리라"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시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에 나오는 구절이다. 결국 하늘이라 잘못 알고 있는 먹구름을 닦아 내야 "티 없이 맑은" 진짜 하늘을 볼 수 있다는 뜻이다. 불교식으로 말하면 삼독(三毒), 즉 탐욕[貪]과 성냄[瞋], 어리석음[痴]이라는 독한 기운을 닦아 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동학혁명과 4·19혁명의 정신을 훼손하고 남북 간의 평화를 가로막는 원인이 마음속 먹구름이었던 셈이다. 그것을 제거하지 않는 한 알맹이는 드러날 수 없다. 불교에서 강조하는 염불이나 명상, 절, 정근 등의 수행은 이러한 먹구름을 제거하는 방편으로써 의미를 지닌다.

"보배를 얻으려면 가죽 주머니를 내려놓아라(若欲獲寶 放下皮囊)."

보조국사 지눌의 〈수심결(修心訣)〉 마지막에 나오는 내용이다. 피낭(皮囊), 즉 가죽 주머니란 소유욕과 명예욕 등으로 가득한 우리 자신을 가리킨다. 그러니까 아상(我相)이라는 못난 주머니를 놓아 버려야 마음에 담긴 온갖 보배를 얻을 수 있다는 뜻이다. 어쩌면 시인이 말한 혁명의 역사 또한 욕망이란 껍데기로 그 의미가 퇴색된 것은 아닌지 모를 일이다. 아무리 맛있는 과일이라 해도 껍질을 벗겨 내지 않으면 알맹이를 먹을 수 없는 법이다.

욕망과 욕망이 충돌하는 현실에서 진심과 만나기란 매우 힘든 일이다. 하지만 진심은 한 번 통하기만 하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에너지를 분출한다. 삶의 질적 전환은 이때 일어난다.

진심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시인이 말한 것처럼 껍데기는 가야 한다. 개인이든, 국가든 역사는 그렇게 발전한다.



이일야 전북불교대학 학장

민속죽염 30년 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 죽염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좋은 소금" 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①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②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③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④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 9번 구운 민속죽염 ◈

가루자죽염	125g	45,000원
가루자죽염	230g	82,000원
알갱이자죽염	125g	50,000원
알갱이자죽염	230g	90,000원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20g	9,000원

◈ 2번 구운 민속죽염 ◈

◆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보급형 민속죽염	500g	20,000원
	250g	10,000원

※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주문 및 상담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길381-4 www.msjy.co.kr

체질 개선과 건강 회복을 위한 합리적 조건
당신의 날씬한 건강이 시작되는 곳
'초록원웰빙'
since 1984
프리미엄 효소 제품과 다이어트 제품을 만나보세요



NAVER 초록원웰빙 검색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만나요
강남점 (도곡동 467-24)


김영숙 대표

02-578-1708 / 010-7384-1708